

‘사투리’ 또는 사그의 표준화에 저항하는 언어

정선태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먼저 1936년 백석(白石, 1912~1996)이 직접 간행한 자신의 시집 《사슴》에 실려 있는 시 <고방>을 읽어 보기로 하겠다.

낮은 질둥이에는 갈 줄 모르는 늙은 집난이같이 송구떡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 오지항아리에는 삼춘이 밥보다 좋아하는 찹쌀탁주가 있어서 // 삼춘의 입내를 내어 가며 나와 사춘은 시름털털한 술을 잘도 채어 먹었다 // 제삿날이면 귀머거리 할아버지가 예서 왕밤을 밝고 짜리꼬치에 두부산 적을 꿰었다 // 손자 아이들이 파리떼같이 모이면 곰의 발 같은 손을 언제나 내어 들렸다 // 구석의 나무말쿠지에 할아버지가 삼는 소신 같은 짚신이 뚝뚝이 걸리어도 있었다 // 옛말이 사는 킁킁한 고방의 쌀독 뒤에서 나는 저녁 끼 때에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백석의 시들 중에서 그나마 ‘쉬운’ 편에 속하는 작품이다. 유년 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고향의 언어로 그려 내고 있는 백석의 시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가 선택한 말들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게 여간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다. 평안도 정주 지역의 방언을 비롯해 사라져 가는, 아니 이미 사라져 버린 우리말들이 곳곳에서 백석의 시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곤 한다.

‘쉬운’ 편에 속하는 <고방>만 하더라도 그렇다. ‘집난이’, ‘송구떡’, ‘임내’, ‘나무말쿠지’, ‘둑둑이’와 같은 단어뿐만 아니라 ‘채어 먹다’, ‘왕밤을 밝고’, ‘옛말이 사는’ 등등의 의미를 읽어 내지 못하면 이 시의 참맛을 음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시의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잃어버린 시간의 냄새와 맛, 분위기도 되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백석의 시만 그런 게 아니다.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작품을 읽으면서 부딪치는 것이 바로 어휘의 장벽이다. 사투리는 물론이고 그 당시만 해도 흔히 쓰였을 성씨는 고유어, 여기에도 한자어까지 더해지면 한 편의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어 내기가 수월하지 않다. 잘 알려진 몇몇 작품을 참조하면서 ‘사라져 가는 목소리들’을 떠올려 보기로 하겠다. 아울러 말이 사라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좋은 문학 작품은 한 시대 삶의 양상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우리에게 보여 준다. 독자인 우리들은 작품 속의 말들을 읽고 들으면서 그 시대를 상상하곤 한다. 형식이나 내용을 별개의 문제로 한다면, 문학 작품은 무엇보다 한 시대의 언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말을 풍부하게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채만식, 이문구, 현기영……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렇다. 특정 지역의 언어를 자신의 작품에 넉넉하게 반영하여 독자성을 얻은 작가들이다. 이들의 작품은 그 자체로 지나간 시대의 언어를 풍성하게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이다. 특히 지역어(=사투리)를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학의 보고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근대 소설사에서 풍자와 해학의 대가로 알려진 채만식(蔡萬植, 1902~1950)의 소설 《태평천하》를 엿보기로 하자. ‘윤직원’이 인력거꾼과 ‘싹’을 두고 주고받는 대화의 일부이다.

인력거꾼은 상하는 심정을 녹이고 종시 공순합니다. 그러나 그 돈장이란 말이 윤직원 영감한테는 저 히틀러라든지 하는 덕국 파락호(破落號)의 폭탄선언이라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말입니다.

“머어? 돈장……? 돈장이 무어당가? 대체…….”

“일 환 한 장 말씀입쇼! 헤…….”

남은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을, 속없는 인력거꾼은 고지식하게 언해(諺解)를 달고 있습니다.

“헤헤, 나 참, 세상이 났다가 벨일 다아 보겠네……! 아—니 글씨, 안 받아두 졸드키 처분대루 허라던 사람이, 인제넌 마구 그냥 일 원을 달래여? 참 기가 맥히서 죽겠네…… 그만두소. 용천배기 콧구녕으서 마넝씨를 뽑아 먹구 말지, 내가 칙살럽게 인력거 공짜루 타겟녕가……! 올매 받을랑가? 바른 대루 말허소!”

인쇄업이 발달하여 책이 대량으로 생산, 유통되기 전에는 묵독보다는 낭독이 일반적이었다. 채만식의 이 소설은 구어적 현장성을 여실하게 보여 주는데, 그 현장성을 튼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윤직원’의 전라도 사투리이다. 채만식의 소설과 판소리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지만, 미학적 측면에서 구어적 현장성의 근거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930년대에 이르러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선어’도 근대적인 언어로 재편된다. 1933년 조선어학회가 한글의 맞춤법 체계를 통일하여 작성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조선어가 근대적 성격을 띠게 되는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근대적이라 했거니와 그것은 표준화와 균질화를 목표로 한다. ‘통일’이라는 말에서 그 지향성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준어가 자리를 잡아 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인쇄 매체의 언어는 당연히 ‘표준적인’ 말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타 글쓰기 영역과 달리 문학에서만은 사투리가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잃지 않는다. 그것은 통일의 다른 이름인 획일화와 균질성을 견디지 못하는 문학의 태생적인 성격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의 성격이야말로 사고의 다양성 또는 다양한 사고의 공존을 실험하게 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언어학자들이 언어적 다양성과 인간의 사고의 관련성을 생각할 때 문학을 참조해야 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백석의 시나 채만식의 소설에서 볼 수 있는 사투리들의 향연을 두고 토속적이라거나 향토적이라고 설명하곤 한다. 틀린 설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토속성이나 향토성이라는 것이 문명한 현재의 시점에서 미개한 과거를 바라보는 이국 취향, 또는 현재의 삶을 위로해 주는 회고 취향의 다른 표현인 것만 같아 적잖이 불만스러울 때가 있다. 이국 취향도 좋고, 회고 취향도 좋다. ‘지금-여기’의 삶만이 전부인 것처럼 고집하면서 다른 세계를 상상하거나 과거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을 거부하는 것만큼 갑갑하고 웅색한 삶도 없을 테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시인이나 소설가가 자신의 글에서 사투리를 불러들이는 이유는 단순히 잃어버린 과거를 추억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배운 언어를 통해 그들이 복원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성과 균질성의 명령에 의해 훼손되고 억압된 고유의 정서와 성정이다. 고향 정주의 사투리를 자신의 시에 대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백석은 언어의 표준화에 맞선다. 그것은 획일적이고 균질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표준어의 기원적 요구를 부인하는 일이다. 채만식의 소설도 마찬가지다. 식민지적 근대화 과정에서 자본의 논리에 예속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전라도 사투리로 어깃장을 놓으면서 희화화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사투리는 더 이상 토속성이나 향토성을 구성하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표준어로 대표되는 근대의 언어학적 기획에 저항하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어의 탄생은 국민 국가의 요청이었다. 국민

국가는 자본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자본주의가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것처럼 표준어도 그렇다. 표준어가 지식의 소통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이와 함께 담론의 민주화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표준어가 정치와 결합하여 억압과 배제를 추동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것은 힘주어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문학 속의 사투리는 억압당하고 배제당한 소수자 또는 약자가 자신의 고유한 정서와 사상을 표현하려는 방법론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아니면 훼손당한 존재의 퇴적층을 파헤쳐 내보이려는 몸부림의 일환인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충청도 사투리가 푸짐하게 펼쳐지는 이문구(李文求, 1941~2003)의 <우리 동네 김 씨>를 보면 이렇다.

“알면 지랄헌다구 물으유? 평(坪)두 있구 마지기두 있구 배미두 있는데, 해필이면 알아듣기 그북허게 헥타르라구 헐 건 뭘냐 이계유.”

“천동면이 이렇게 촌인가…… 저런 딱헌 사람두 다 있으니. 나 보슈. 국가 시책으루, 미터법에 의하여 도량형 명칭 바뀐 지가 원젠디 연태까장 그것두 모르는겨? 당신이 시방 나를 놀려 보꼐다—— 이계여?”

부면장은 당장 잡도리할 듯이 눈을 부라리며 언성을 높였다. 곁에 앉은 남병만이가 팔꿈치로 집적거리며 참으라고 했으나 김도 주눅 들지 않고 앉은 채로 응수했다.

“내 말은 그렇게백이 안 들리유? 저 핵교 교실 벽패기 좀 보슈. 뭘라구 씨 붙였슈? 나라 사랑 국어 사랑…… 우리말을 쓰자는 것두 국가 시책이래유. 옛날버팀 관공리 말 다르구 농민들 말 다른 게 원칙인 게유. 천동면이 이렇게 촌인가…… 끄——”

이문구의 연작 소설 《우리 동네》,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는 충청도 사투리에 대한 이해 없이는 독해가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 적지 않다. 어휘도 어휘지만 억양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없이는 대화의 분위기마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근대화 과정에서 주변으로 밀려나 서서히 퇴락해 가는 농촌의 모습과 농민들의 삶을 탁월하게 그려 낸 이 소설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 어린 기억을 넘어 소외되고 훼손된 것들을 위한 진혼의 노래이자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한 것들을 향한 저항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진혼과 저항의 미학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충청도 사투리다. ‘땡’이고 ‘마지기’고 ‘배미’고 다 폐기처분하고 국가 정책에 따라 미터법으로 통일하여 ‘헥타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유머와 해학과 풍자가 어우러진 이 짙막한 장면을 통해 사투리의 힘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유식한 소리를 무식하게 내뱉는’ 권력에 맞서는 농민들의 사투리를 전면 에 내세운 이문구의 소설은 제도적 균질화와 획일화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결기의 문학적 성취라 할 수 있다. 경제적 발전이 서울 중심의 집중화와 함께 지방의 황폐화를 초래했다는 것은 다시 말할 것까지도 없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투리(=지역어) 역시 황폐화했다는 사실은 흔히 간과하곤 한다. 사투리의 황폐화는 정서와 사상을 다양하게 가꾸는 토양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물학적 다양성이 생태계의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듯이 언어적 다양성은 정서와 사상과 상상력의 생태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번역 불가능한 사투리가 우리의 내밀하고 고유한 정서의 토양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사투리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획일성의 논리와 대결할 수 있는 하나의 유효한 방법일 수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나 명령을 거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투리(모어)가 경제적인 압박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폭력과 연결 될 때 특히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 민중의 고통스러운 삶을 치밀

하게 그린 현기영(玄基榮)의 소설들은 대단히 문제적이다. 1978년에 발표된 <순이 삼촌>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고향 사투리였다. 내 입가에도 은연중에 고향 사투리가 떠올라 뱀뱀 뱀뱀했다. [중략] 잿빛 바다 안으로 날카롭게 먹어 들어간 시커먼 현무암의 갑(岬), 저걸 사투리로 ‘코지’라고 했지. 바닷가 넓은 ‘돌빌레[岩盤]’에 높직이 쌓여 있는 저 고동색 해초 더미는 ‘듬북늬’이겠고, 거울 바다에 포말처럼 둥둥 떠 있는 저것들은 해녀들의 ‘태왁’이다. 시커먼 현무암 바위 틈바구니에 붉게 타는 조갯불, 물에 오른 해녀들이 불을 켜는 저곳을 ‘불턱’이라고 했지. 나는 잊어 먹고 있던 낱말들이 심층 의식 깊은 데서 하나하나 튀어나올 때마다 남모르는 쾌재를 불렀다. 이렇게 추억의 심부(深部)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머릿속은 고향의 풍물과 사투리로 그들먹해지는 것이었다.

고향이자 ‘4·3사건’의 현장인 제주를 찾아가는 길에 화자인 ‘나’가 처음 만난 것은 ‘사투리’이다. 과거의 기억을 찾아가는 그의 귀향길은 잊고 있었던, 아니 잊어야만 했던 고향의 언어를 찾아가는 길이나 다름없다. ‘심층 의식’ 깊은 곳에 억압하고 있어야만 했던 낱말들을 만날 때마다 쾌재를 불렀다는 그의 진술은 ‘무엇이, 왜 그 낱말들을 질식 상태로 몰아넣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빨갱이’의 땅으로 명명된 제주도를 고향으로 둔 사람들은 그 후로 오랫동안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다. 그 시간을 견디며 살아 내기 위해 ‘섬사람’들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말을 지워야 했고, 고향의 과거를 기억 속에서 추방해야 했다. 하지만 꿈속이나 취중에, 그러니까 의식의 검열이 느슨해졌을 때 불쑥 튀어나오는 모어(= 사투리)를 언제까지 감춰 두고 살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그것은 자신의 고유한 정서와 사상의 태반(胎盤)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향의 들머리에서 화자가 잃어버렸던 말을 다시 떠올리며 ‘그들먹해지는’

것은 유형무형의 억압에서 해방된 자의 충만감 때문일 것이다.

“사투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어에 비해 ‘교양 없고’ 촌스러운 말일 수도 있고, 과거를 오롯이 품고 있는 기억의 저장고일 수도 있으며,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배제당한 상처의 흔적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투리가 표준어에 많이 침식 당하긴 했지만 우리의 정서와 사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사투리는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고유어이다. 지금은 표준어의 위세에 눌려 힘을 못 쓰고 있는 형편이지만 언젠가는 사투리들의 전성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언어의 다양성이 삶의 다양성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면 획일적이고 표준적이며 억압적인 삶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의 ‘사투리’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것이 설령 장소에 기반을 둔 언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은 오래된 사투리에서 미래의 언어를 찾을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경향성이다. 그런 점에서 사전 속에 갇혀 사어화(死語化)한 언어들을 발굴하고 탁마하여 현재 우리의 사고와 표현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하려는 문학자들의 노력은 참으로 소중하다. 그것은 곧 ‘나’를 ‘나’답게 하려는 노력, 인간의 고유성을 박탈하고 급기야는 인간을 사고 불능 상태로 몰고 가려는 모든 기획에 대한 저항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투리는 취미 삼아 기억의 상자에서 이따금 꺼내 쓰는 말이 아니다. 언어적 다양성을 확장하고 사고의 표준화에 저항하는 무기로서 사투리는 다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